

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6월 7일 (제105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중독

나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골프와 테니스, 그리고 분재와 수석 등에 몰두했다. 세상 말로 그것들에 중독되었었다. 내 성격 자체가 무언가에 쫓기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수석을 한 트럭 집에 들인 적도 있고, 곤드레만드레 술이 취해 들어와도 새벽이면 테니스 채를 들고 나가곤 했다. '누가 말려!' 이것이 당시 우리 가족의 반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중독에서 풀렸다. 어떻게? 바로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로 중독되었고, 주의 일에 중독되니 과거에 몰두하고 연연했던 것들과 자연스레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다. 사랑의 아픔은 또 다른 사랑으로만 치유되듯, 중독은 또 다른 중독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중독, 즉 약물, 게임, 알코올, 도박...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려고 애쓰건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작심삼일인가? 그런 자신을 의지박약자라고 자학, 자탄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미 중독된 것을 끊어내는 것은 당신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화투에 중독되어 집도 날리고, 가정도 깨져서 다시는 안 하려고 손목을 잘랐는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는 팔뚝에 끼고 화투를 하느라 지 않던가.

이렇게 해보자. 중독된 것을 고치려 말고 좋은 중독으로 극복해보는 거다. 게임 대신 화초를 가꾼다든지, 술 마시는 것 대신 운동에 집중한다든지 하는 거다.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쁜 습관과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처럼 예수로 중독되는 것이 가장 좋다. 나도 지고는 못가도 먹고는 갈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하루 몇 갑씩 줄담배도 피웠었고, 향락을 피하는 것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예수로 중독되고 나니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들이 하나도 재미없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더라.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싫어 하듯 말이다.

예수로 중독된 삶이 성공한 삶이다. 살아도 오직 예수, 죽어도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절대 후회가 없을 것이다. 세상 중독은 예수 중독으로 극복하자!

떡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한다

지난 수요예배에서 목사님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나 기업이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지 말씀하셨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순간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더니 악신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겁

이겁니다. 떡배기가 아무리 좋아도 장맛이 시원찮으면 소용없습니다. 떡배기 그릇이 좋다고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장 자체가 좋아야 된장찌개가 맛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이 변질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떡배기에 끓여도 제 맛이 날 수 없습니다. 변질자, 바로 사울은 변질됐기에 버림받은 겁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변질됐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일류 음식도 변질되면 음식쓰레기통에 들어갈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도 변질되어버리면 버림받았다는 것이 성경이 간증하는 내용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라도 그냥 내버려두라 심니다. 가라지 뽑다 알곡 상황까 두려워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첫사랑을 잃으면 버림받은 사실조차 모르고 그 삶에 되는 꼬락서니가 없는데도 사울이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기까지 끌려 다닌 것처럼 악신에게 끌려 다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곧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



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도 첫사랑을 잃으면 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 순간,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일흔 번의 일곱 번이라도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가 뭐냐? ‘떡배기보다 장맛이다’

입니다. 떡배기도 좋고 장도 좋다면야 금상첨화겠지요. 많은 결혼상담을 하는데, 문벌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 듣고 난 후에 단 한마디로 종결지어 줍니다. 아무리 문벌이 좋고, 학벌이 뛰어나고, 인물이 수려하고, 그런 떡배기보다 장맛, 곧 마음이 고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집은 좀 좁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과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가정을 찾아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그는 이미 내가 버렸다.’ 소름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정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목사, 장로에 대

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유언처럼 기도원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어서 돌이키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변질되어버리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 떡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합니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소가 없는데 아무리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때늦은 후회로 눈물 바가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령 충만한 삶,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살후3:10~13)



공짜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가 탄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랍니까? 이 말인즉 젊은이들이 조금 험하고 힘든 일은 안 한다는 겁니다. 편안한 일, 조금 일하고 돈은 많이 받는 일,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일을 찾으니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0여 평생을 살아봤는데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습디다. 공짜에는 독이 있습디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고 했는데, 그러나 양젓물 마시면 죽습디다.

호주에는 세계 최대의 정어리 통조림 공장이 있었습디다. 이 공장 주변에는 갈매기가 그야말로 때로 몰려 살았습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갈매기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디다. 왜 그런가 하고 조류학자들이 분석해보니 이 갈매기들이 정어리 공장에서 나오는 내장 같은 것을 배급받듯 먹다가 정어리 공장이 문을 닫으니 먹지를 못해서 아사(餓死)한 것입디다. 조금만 날면 바다에 먹거리가 지천이건만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져 굶어 죽으면서도 그 자리만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디다. 자생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디다.

자생력을 상실한 사람들도 많습디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바라고 있고, 일확천금이나 바라며 복권이나 사는 사람들 말입디다. 덩치는 부모보다 큰데 아직도 켄거루처럼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자들이 많습디다. 안 됩디다.

게으름은 악이요 게으름은 무책임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일침을 놓습디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 일하기 싫습니까? 먹지도 마십시오. 노력하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지금 그대로 사십시오. 이젠 제 말이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대사도인 바울의 말입디다. 사도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받을 권, 곧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자족하며 복음을 전했습디다.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살후3:8~9)고 당당하게 말한 것입디다.

여러분, 하나님도 옛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디다.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

굽기 20장 9~10절 말씀에 통해서도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라고 했습디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심으로 열심히 일한 자가 잘되고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디다.

제가 세계를 메주 밟듯 다 다녀봤는데,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다 있습디다. 게을러요. 일 하나 시키면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점심 먹고는 두어 시간 오수를 즐기느라 가게며 공공기관이며 다 문을 닫습디다. 그래놓고 잘살기를 바란다 말

이 안 되죠. 우리 나라가 어떻게 이리 발전했습디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국토는 남북으로 갈리고, 잘린 국토 중 70%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 손가락에 꼽히는 경제 대국이 되었느냐 이 말입디다. 바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오늘이 된 거 아니겠습디다? 다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애쓴 결과입디다. 어떤 사람들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 합디다. 게으른 자들은 늘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잠26:13). 그러나 최고의 자산이 젊음이요, 부지런 아릅니까? 그것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강도는 다름 아닌 게으름임을 알게 될 것입디다. 그 강도를 방지하면 내 인생의 미래는 없습디다.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인물이 좋으면 뭐합니까? 부지런해야지요. 좋은 머리와 학벌을 가만둬서 썩히는 것은 세계적인 명차인 벤츠를 차고에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디다. 결국 녹슬

고 말지요. 인생도 그렇습디다. 열심을 내서 일하고, 도전해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디다? 자고로 열쇠도 자주 써야 윤이 나고, 문이 잘 열리는 법입디다. “무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전10:10).

집고양이들은 야성을 완전히 잃어서 주인이 주는 먹이나 먹고, 그 품에서 애교나 부리며 삽니다. 쥐를 앞에 놓아두면 오히려 무서워 도망간답니다. 본성을 잃은 겁니다. 자고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진 존

재입디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

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잃었습디다. 왜요? 게을러서입디다. 여러분,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필수 항목이 부지런입디다. 게을러서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디다(잠12:24).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24:30~34)는 말씀처럼 게으른 집의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게으른 집의 담은 무너져있고, 게으른 집 아이는 꼬질꼬질합디다. 그러나 부지런한 집은 반지르르하지요.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임을 말하고 있지 않

습니까?

야성을 잃은 고양이, 편해 보이지만 그건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의 장난감에 불과합디다. 그렇게 살고 싶습디다? 정상에 도전하느라 땀도 흘려보고, 눈물로 씨도 뿌려보고, 밤새 번민과 고뇌도 해보고... 한 번 뿐인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디다? 80의 나이에 도 헤브론을 달라고 도전한 갈렙처럼 나이를 초월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디다.

야성(野性)을 잃은 고양이가 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神性)도 회복해야 합디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디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합디다. 목사, 참 편합디다. 대접받고, 성도들이 목사 말이라면 정말 잘 듣습디다. 그런데 편한 것에 취해 있다 보면 신성을 잃게 됩디다. 야성을 잃은 고양이 꼴 납디다. 목사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디다(행6:4). 그래서 신성, 곧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는 말씀을 이뤄야합디다. 예수님도 낮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밤이 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미명에도 기도하시며 열심을 다해 일생을 사셨습디다. 고로 목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일에도, 일상에도 열심을 내야 합디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입디다. 악은 곧 마귀입디다.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디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잠10:4). 패가망신하게 되고(잠18:9),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디다(마25:26~28). 그러니 게으른 나와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습디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디다. 무위도식하면 뇌도, 몸도 망가지나 일을 하면 성취의 기쁨과 함께 육체도 건강해지는 법입디다. 이제 국가가 날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노력해봅시다. 교회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위해, 부모와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세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살전4:11~1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분노는 패망의 지름길

하나님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약1:20)고 말씀하셨지만, 사회 전반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정치 집단이나 기업체는 물론이고 주님의 교회에도 분노가 가득하여 서로가 물고 뜯으며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정 속에 폭탄처럼 숨겨져 있는 분노의 뇌관을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여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폭탄이 터지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속대밭이 되고 맙니다.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니 분기탱천하여 죽기 살기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나하고 다른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다툼을 피하고 공생 공존하는 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롬3:10). 최근 드러난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분노하고 욕하던 일들을 스스로 더 많이 한 사실이 드러나 세간에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과거를 청산한다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어떤 사안은 수십 년 동안 벌써 8차례 이상 조사를 했지만 아직도 조사가 미비하여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당기관에서 정해진 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풍조와 정치적 이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나날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노가 가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를 흘리며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악한 마귀는 분노와 다툼을 통하여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분노를 제거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상화평 목사**

:: To Be Succeeded ::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내 인생에 고난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가 있던 그 자리에 믿음과 소망을 심으사 당장 달라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을 갖게 하셨다. 당시 근심했던 상황이 점차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감을 보며 지극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자녀를 바랄 수 없는 나이에 자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신다(롬4:18~24).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원망의 씨앗을 뿌린 열 사람의 정탐꾼과는 달리,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을 보라. 하나

님께 인정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맡겼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일부러 어지럽게 하여 떨어지는 새끼가 바닥에 닿을 때쯤 구하는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작고 연약한 새끼들을 새들의 제왕으로 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근육, 감사의 근육을 단단하게 훈련하신다. 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굳게 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렵고 어려운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가 능히 풍랑을 건너게 하신다. 기억하자.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그 어떠한 큰 문제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자 도약대가 됨을. **이국진 사모**

개가 웃었다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경우를 당했다. 가장 큰 위기 상황이다. 나보다도 먼저 목사님과 교단을 생각하니 답이 없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금식기도밖에 달리 수가 없었다. 응답이 쉬이 오지 않고 결단을 해야 하니 마음이 조급해졌다. 주님 생각, 목사님 생각, 교단 생각에 내 체면과 자존심을 여지없이 구겨버려야 하니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께 카톡으로 상황을 말씀드렸다. 목사님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드려야 할 판국에 참 연락드릴 면목이 없었으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마지막 돌파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금방 답장이 왔다. 이모티콘을 보내셨다. 개가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이였다. 순간 내 마음이 편해졌다. 그대로 답이 됐다. 개가 웃을 상황에 빠져 있으니 그 상황에 빠져 허덕이는 내 모습을 말

씀하시는 것이다. 나로서는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 생각했는데 목사님께는 그저 개가 웃을 정도의 하찮은 일인 것이다. 가진 목사님께서 지나온 역정에 비하면 내가 겪는 것쯤이야 개가 웃을 정도일 것이다. 전화로 마무리해 주셨다. ‘목사는 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모든 것 말기고 가는 길이다. 네가 시작하였으니 끝장을 보라.’,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남자의 자존감은 주군이 믿어줄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다.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예측불가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이 맛에 내가 이 교단에 있는 것 아닌가.’ 어른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고민에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는 것 아닌가. 목사님이 보내주신 개가 요절복통하는 이모티콘.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광주 목사**
leekjlkj@naver.com



:: 내가 매일 기쁘게 ::

‘나는 할 만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다.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개학한 지 3개월 만에 담임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작은 사업체를 굴리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길고 지루한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하나씩 들쭉 쓰러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 ‘생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격려하고 있지만, 이 상황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고 있다. 그저 ‘이 시국’, ‘이 상황’의 무게를 주님께 의탁하고 싶을 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는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에게 쉬움, 안식을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 지쳐 갑니다.’라고 QT를 하다가 문득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궁금해져 성경을 펼쳤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9~30). 말씀을 읽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쉬을 얻으려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희생의 무게를 감히 알지 못한다. 그 큰 희생의 사랑을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이라 말하는 예수님의 따뜻함과 겸손함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나 이만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며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시간을 살고 제일 큰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하곤 한다. 부부 사이와 가족 간에는 물론이며,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힘든 걸 알면서도 ‘나만큼 힘드냐?’는 말을 너무나 쉽게 뱉는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다. 지금까지의 불평과 불만을 접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야겠다. ‘나만 하겠냐?’라는 말 대신, ‘나는 할만해! 주님이 계시니까!’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발 더 다가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힘들음을 공감하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길 기도한다. **전훈지 집사**

하나님 보시기에

지방에 다녀와야 해서 차를 렌트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았기에 가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를 가득 담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려서 우연히 범퍼 아랫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굵고 기다란 흠집이 나있었습니다. 처음 차량 상태를 점검하던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제가 그런 게 확실해보였습니다. 순간 렌트카 회사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흠집을 벌미 삼아 고객에게 크게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들이 많다는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마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본인이 직접 수리해서 렌트카 업체 모르게 반납하는 것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온통 고민만 가득했지 딱히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내내 풀이 죽어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사 자리에서도 조금도 신이 나지 않았습니 다. 음식이 아니라 까끌까끌한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제 마음에는 ‘어느 때 같았으면 즐거운 기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

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는 ‘내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 라는 교만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대면하자,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한 찬양인도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즉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고쳤습 니다.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돈 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주 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반납하기 위해 렌트 카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범 퍼 아래에 굵고 선명한 흠집을 유심히 보 았고, 저는 직원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반납 잘 되었다는 말만 남기 고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흠집,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수리비 부담하겠습 니다.”라고 했더니 그 직원은 저에게 이렇 게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굵은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 라 정직한 직원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셨

던 겁니다. 돈에 대해 정직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쉬 울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실 때 변명이 나 남 탓, 자기 합리화를 모두 물리치고 “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그 알량한 자존 심으로 담을 세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 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 이 정직한 자이며 하나님께 신뢰를 쌓는 자입니다. 죄를 지성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을 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들으며 쓴 뿌리를 제거하고 부지런 히 가지를 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여, 끝까지 승리하 십시오!

박영신

rubyday0@naver.com

황금물고기

연못에 아름다운 황금색 비늘을 가진 물 고기가 살고 있었다. 황금색 비늘이 너무 아름답고 도도해서 아무도 그의 곁에 다 가지지 못할 정도였다. 또 황금물고기도 자신의 비늘이 다칠까봐 다른 물고기 근 처에 다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외로워졌 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욱 슬펐다. 그즈음 다른 연못에서 이사 온 물고기가 그의 아름다움에 반해 말을 걸어왔다. 외 로워하던 황금물고기는 그를 반갑게 맞 았고, 둘은 곧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이사 온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에 게 부탁했다. “친구야, 너의 아름다운 비늘을 하나만 내게 주렴.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그러자 황금물고기는 선뜻 자신의 황금 비늘 하나를 내주었고, 좋아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도 기뻐했다. 그것을 본 연못의 다른 물고기들도 너도 나도 황금 물고기 에게 물려와 비늘 하나만 달라고 졸랐다. 마침내 비늘을 다 주고 난 황금물고기는 보통 물고기처럼 되었지만,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연못을 지나던 사람은 연못 전체가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연못 속 물고기들이 하나씩 지니고 있는 황금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 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는가? 사람 인 (人)은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있는 모습 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살면서 사 랑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살아야 사람 이다. 홀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떼 지 어 나는 참새보다 행복하다 누가 말하겠 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두 사 랑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 이면 어찌 따뜻하랴”(전4:11). 너(You)와 내(Me)가 합해져 우리(We) 가 되면 행복도, 능력도 시너지효과가 생기는 것을 알자. 코로나를 겪는 이 시 점에 꼭 들려주고픈 이야기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고
훗날 이 모든 것은
멋진 추억담이 되리라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지금은 면역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진 이때,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의료, 방역관리 시스템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는 데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진 국으로 알고 있던 해외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온 이 많이 높지 않으면 검사를 받기 어렵 다 보니 일부러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고열을 더 만들어서 응급차를 타고 검사 를 받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듣기 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거의 잠잠해질 무렵 2차 집단감염으로 숫자 가 다시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느슨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금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 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두가 개인 면 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마스크 사용 및 위생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겠습 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침투하여 다른 장기에게까지 번지게 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폐를 튼튼하게 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폐를 튼튼 하게 하는 운동으로는 산책이나 헬스장 도 좋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 정 내에서 홈트레이닝 등을 통한 규칙적

인 운동으로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른기침을 특징으 로 하기에, 한의학에서 마른기침은 폐가 건조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여 폐를 윤택하게 하고 촉촉하게 하는 오미 자, 맥문동이 좋습니다. 평소 폐가 건조 하거나 목이 잘 마르거나 마른기침을 앓 았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평소 오미자와 맥문동을 동일한 용량으로 하여 꿀을 조 금 넣어서 매일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 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오미자와 맥문동 은 폐의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폐가 건조하지 않고 가래가 자주 끓거나 누런 콧물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는 도라 지(길경)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 라지는 폐의 기운을 소통시켜주며 염증 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콧물색이 진할 경우 면역개선의 효과가 큼니다. 평소 열이 잘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의원 이나 약국에서 갈근탕을 준비하여 오한 발열에 해열제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빠릅니다. 목이 자주 아픈 경우에는 병원 진료와 동시에 은교산 등을 약국에서 구 매하여 복용하면 치료의 효과가 배가 됩 니다.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코로나에 확 진되어 격리 중에 대한한의사협회 코로 나 무료진료(1668-1075)로 연락을 취

하게 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청폐 배독탕 외 면역한약 등을 무료로 처방받 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시에는 생강차, 진피차 (꿀꺽질차) 등을 평소 자주 마심으로 소 화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감기가 유발되 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하거나 체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히 혈압이 없다면 홍삼액기스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있 다면 홍삼보다는 오미자, 산수유, 마를 차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심과 걱정은 마음을 상 하게 하며, 이는 한의학에서 심장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을 조절해주 는 폐는 냉각수 역할을 하기에, 열이 많 아질수록 폐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신 경을 많이 써도 폐의 진액이 마르게 되어 마른기침이 나고 감기에도 걸리기 쉬운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기도와 말씀으 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상, 그 리고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 는 것 역시 코로나시기에 꼭 필요한 면역 증강의 빼놓을 수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